

“내 손안의 인공지능(AI) 농사 전문가” 농촌진흥청, ‘AI 이삭이’ 2.0 공개

- 9월 30일 농업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
- 사진 찍으면 병해충 진단, 말로 물어보면 답하는 똑똑한 인공지능(AI) 서비스
- 맞춤형 비료 처방부터 영농 일지까지...농가 현장 활용 기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병해충 진단부터 영농기술 상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농업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AI 이삭이’ 2.0을 9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이삭이’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방대한 검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인의 궁금증을 즉각 해결해 주는 인공지능(AI) 영농 상담 서비스다.

이번 2.0 버전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맞춤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병해충이 의심되는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AI)이 즉시 분석해 진단 결과를 알려준다.

또한, 휴대전화 조작이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음성으로 편리하게 대화하며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농가 맞춤으로 비료나 농약을 추천하고, 영농일지 기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농촌진흥청은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56만 건의 기술 자료와 30만

건의 병해충 영상, 1,800여 건의 교육 영상을 집중 학습시켰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를 사용하는 등 화면을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사용자는 앱 접속 시 보이는 갱신(업데이트) 안내에 따라 최신 버전을 설치해도 되고, 신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AI 이삭이’를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청년농업인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전북특별자치도 김제)는 ‘AI 이삭이’ 2.0을 체험한 뒤 구분이 어려운 병해충의 복합감염이나 생리장해를 판별하고 스마트팜 환경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농촌진흥청 신재훈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AI 이삭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농촌진흥청의 최신 기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모든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농업 비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신 재 훈	(063-238-0550)
	농업지능데이터팀	담당자	지도사	나 예 림	(063-238-055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